

울산광역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현황과 대응방안¹⁾

고영란(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 젠더 갈등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으로 대두하였음. 특히 청년층 내부에서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젠더 갈등 양상은 언론, 정치권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증폭되고 극화되어감. 청년층이 처한 위기가 청년들 실제의 삶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논쟁적인 담론으로만 소비되고 있으며, 결국 청년 담론에서 청년은 주체성을 잃고 소외됨.
- 울산시 내에서 젠더 갈등은 아직 활발하게 공론화되지 못했으며 울산시 차원의 젠더 갈등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 젠더 갈등 연구들은 전국 모든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대상자 중 울산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매우 낮아 울산시의 상황이 잘 반영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갈등 연구가 필요함.

① 한국사회 청년층의 젠더 갈등에 대한 기존 분석

- 2015년 이후 청년 여성 사이에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으며, 이들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점차 가시성을 획득하게 되었음.
- 한편 청년 남성들은 한국사회에 더 이상 성차별은 없으며 오히려 남성이 사회적 약자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²⁾.
- 성평등을 인권,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청년 여성과 자신을 약자로 인식하며 페미니즘 실천과 그것의 결과를 역차별·불공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 남성 간 인식 격차는 젠더 갈등으로 증폭됨.
 - 그러나 젠더 갈등으로 명명되는 양상 안에는 청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이나 임신중지 문제와 같은 젠더 이슈 등이 한데 뒤섞여 있음. 세대, 계층 불평등 문제가 모두 젠더 갈등으로 수렴되는 형국임³⁾.

1) 본 BRIEF 29호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년 기본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현황과 대응방안」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2)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천관율, 정한울(2019).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시사인북.

3) 김보명(2019).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강희영, 최유정(2019).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성조(2019). '청년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12-39.

② 울산광역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현황

I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29세 청년 1,000명(여성 468명, 남성 532명)
- 조사 기간 : 2021년 7월 10일 - 2021년 7월 17일
- 조사 내용 :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여성혐오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설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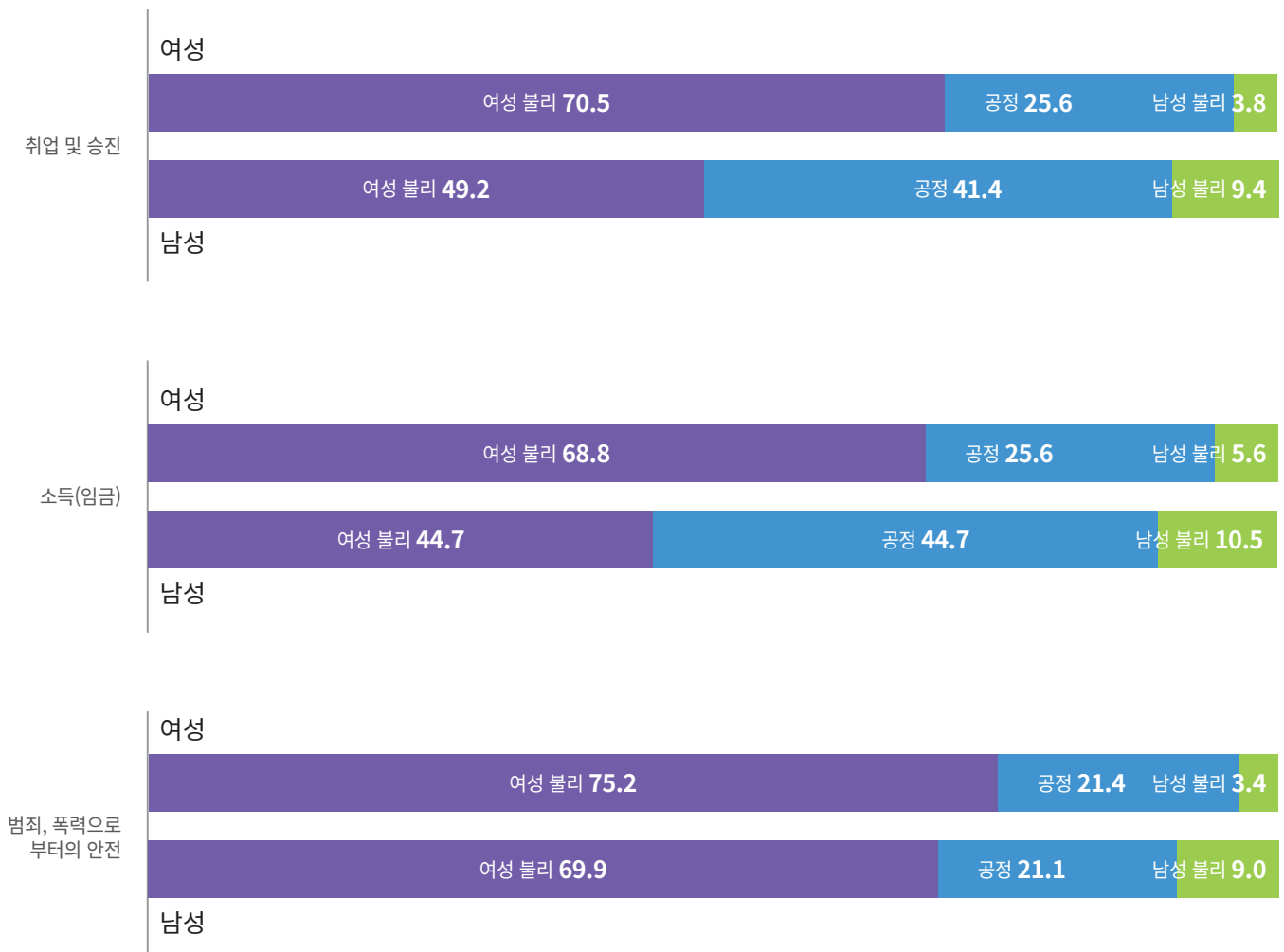
2-1. 비가시화 된 울산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I 울산청년, 우리 사회 성차별에 공감

- 울산시 청년 여성과 남성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취업 및 승진, 소득, 가사노동과 돌봄, 범죄로부터의 안전 측면 등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응답함.
- 울산시는 제조업 등 남성 중심적 산업 기반의 도시로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큼. 성차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울산시의 현실은 모두에게 성차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사회에서 각 항목은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

(단위: %)



I 낮은 역차별 감각

- 본 연구와 전국 대상 조사⁴⁾를 비교하여 재구성⁵⁾ 한 결과, 울산 청년 남성들은 역차별 감각이 현저히 낮았음. 이는 최근 청년 남성들이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기존 분석들과 상반된 결과임.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한가? (단위: %)



I 성역할 고정관념 수용

- 울산 청년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자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

성역할 고정관념 수용 (단위: %)



I 낮은 젠더 갈등 체감도

- 울산 청년들은 젠더 갈등 체감도가 낮았음. 전국 대상 조사⁶⁾에서 20대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젠더 갈등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이라고 지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울산 청년(20대) 응답자의 10% 내외만이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꼽았음.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은 젠더 갈등이다 (단위: %)



4) 시사주간지 시사인(시사IN)이 2019년 3월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000명(20대 500명, 그 외 연령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천관율 · 정한울, 2019).

5) 본 연구와 시사인 연구의 문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시 청년층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였음. 아래는 본 연구와 시사인의 설문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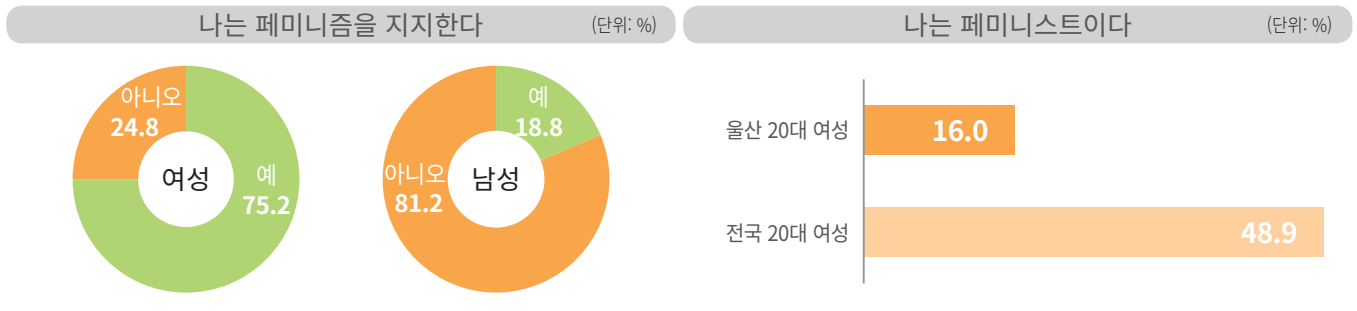
본 연구	Q. 귀하는 우리사회의 성평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여성차별이 심각하다 ~ ③평등하다 ~ ⑤남성차별이 심각하다)
시사인 (천관율 · 정한울, 2019)	Q1. 여성차별 문제 심각한가? (①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④매우 심각하다, ⑤모르겠다) Q2. 남성차별 문제 심각한가? (①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④매우 심각하다, ⑤모르겠다)

6) 권기석 · 권중혁. 「세대별 갈등 요인, 청년 ‘성(性)’, 장년 ‘빈부’, 노인 ‘이념’ 꼽아」, 국민일보, 2018. 12. 10.

2-2. 잠재된 울산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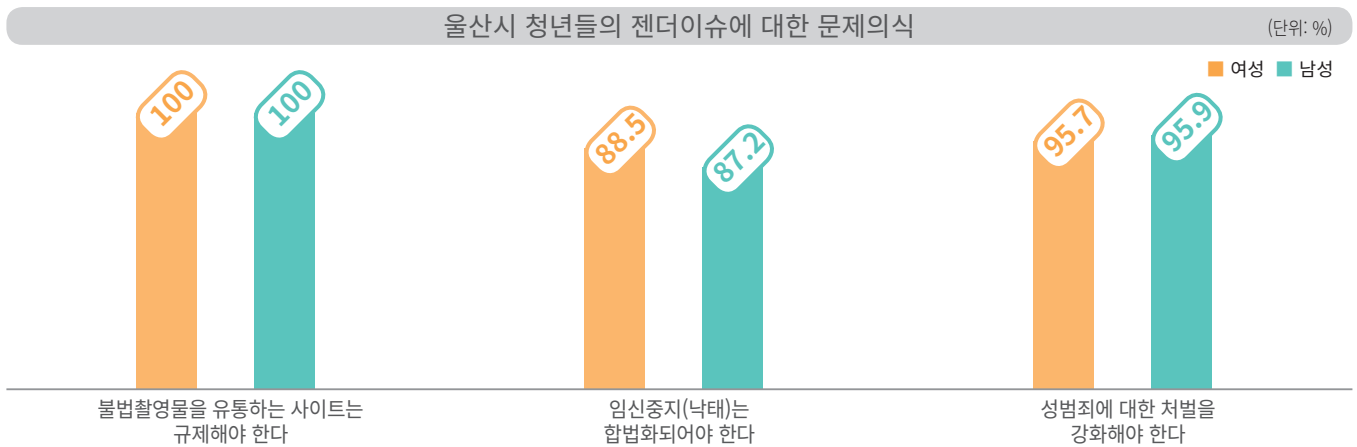
I 페미니스트 정체성

-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울산 청년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았음. 그러나 전국 조사⁷⁾와 비교해보면, 울산 청년 여성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높은 지지와는 다르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
- 즉 울산 청년 여성들은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이는 보수적인 지역문화의 영향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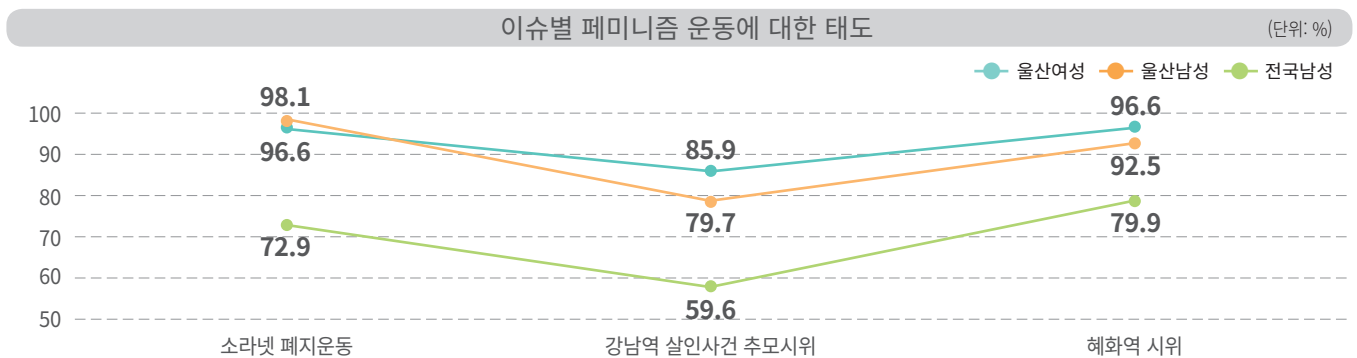


I 페미니즘, 젠더이슈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

- 울산시 청년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디지털 성폭력, 임신중지 등 젠더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높았음.



- 울산시 청년들은 최근 몇 년간 일어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음.
- 울산의 청년 남성들 역시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범죄 등 각 이슈별 페미니즘 운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이는 전국 조사⁸⁾에서 나타난 청년 남성들의 응답과 비교해서도 매우 우호적 태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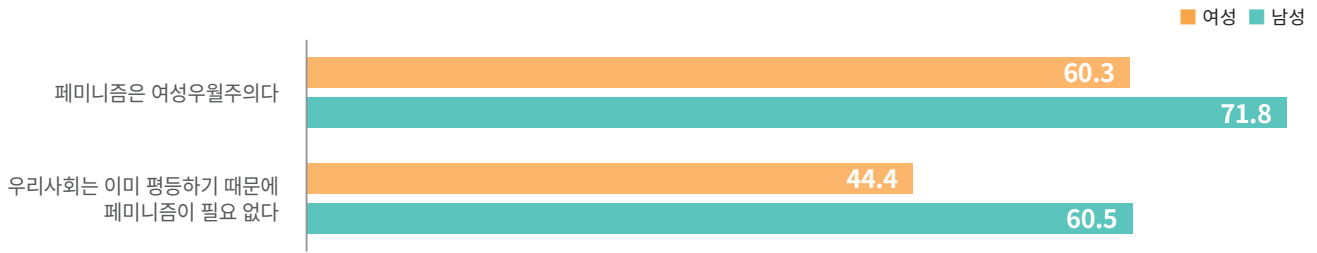
7)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발표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 발췌

- 울산 청년들은 성차별과 성폭력에 반대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느낌’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임.
- 이러한 경향은 청년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울산 청년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느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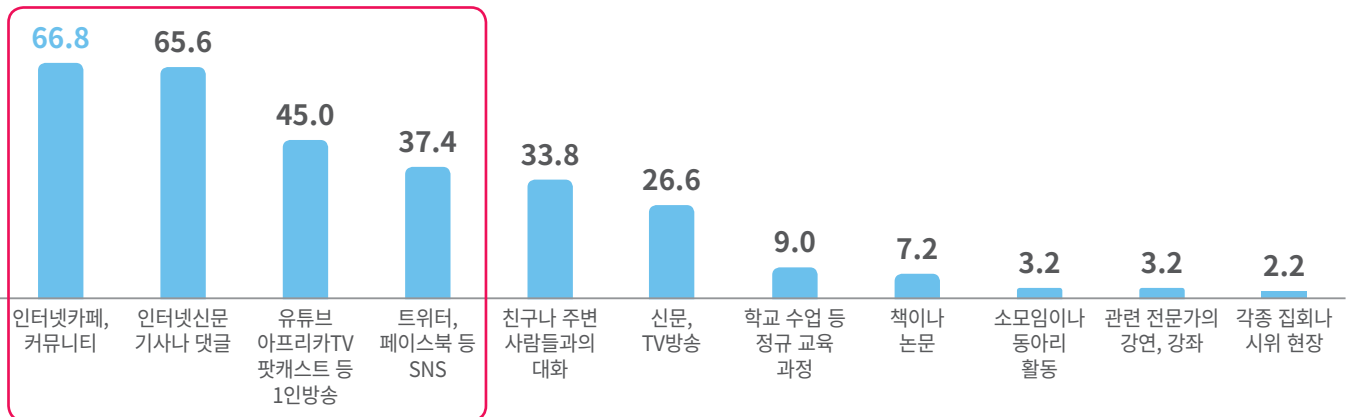


페미니즘 관련 정보 수집 경로와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 울산 청년들의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반면에 페미니즘에 대한 ‘느낌’은 부정적이었음.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혐오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페미니즘 관련 정보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⁹⁾.
- 울산 청년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페미니즘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음.

페미니즘 관련 정보 수집 경로

(단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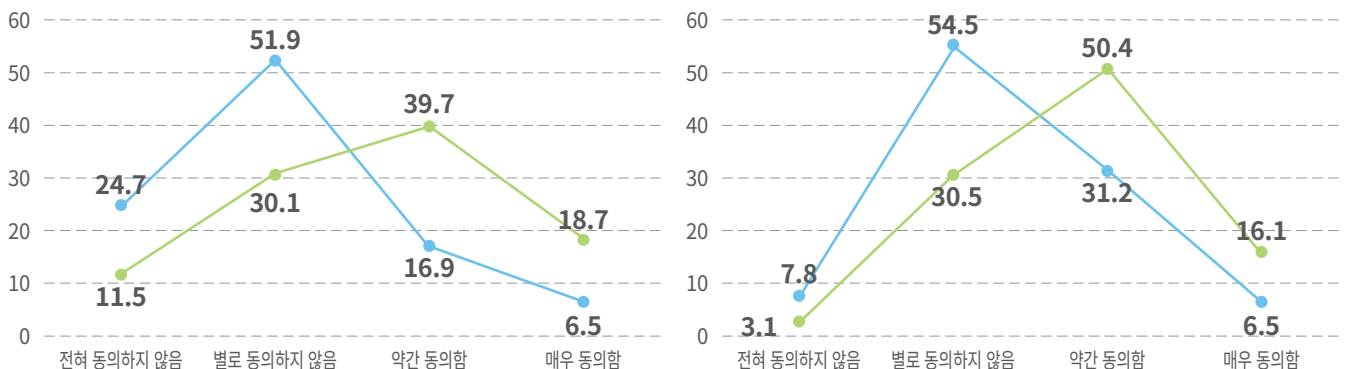
- 반면, 인터넷이 아닌 페미니즘 서적이나 논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본 경험이 있는 울산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적었음.

우리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필요없다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한다

(단위: %)

● 페미니즘 관련 서적, 논문을 읽은 경험이 있다 ● 페미니즘 관련 서적, 논문을 읽은 경험이 없다



9)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I 잠재된 울산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

- 울산 청년 남성들은 성차별을 인지하고, 젠더이슈에 우호적 태도를 가졌으며 각 이슈별 페미니즘 운동에도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한 ‘감각’이나 ‘느낌’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음.
-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수용하고 있는 울산 청년 여성들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젠더이슈와 페미니즘 운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음. 그러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 보수적인 지역 문화 안에서 낙인의 부담은 이들이 가진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제기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음. 또한, 비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징은 인적, 물적 페미니즘 자원의 부족으로 활발한 페미니즘 활동이 어렵게 만들었음.
- 따라서 울산 청년들은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문제제기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때문에 울산의 젠더 갈등은 비교적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청년들의 성별 인식 격차와 청년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 및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언젠가 젠더 갈등이 드러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잠재한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울산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모색하고 준비해야 함.

③ 울산시 청년층 젠더 갈등 대응방안

울산시 청년층 젠더 갈등 대응방안



성인지 교육 활성화

- 통합적인 성인지 교육, 성인지 교육 일상화, 울산청년기본조례에 성인지 교육 명시화

청년 정책 재구성

- 정책 대상 세분화 :
 -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 젠더별, 계층별 특수성 및 비혼, 무자녀 등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제공
- 정책 범위 확대 :
 - 젠더 관점의 청년 정책으로



페미니즘 자원 확대 및 지원

- 활동비 외에도,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 역량 갖추도록 지원
- 다양한 배움과 토론의 장 제공, 청년 여성들의 참여 기회 확대



청년의 정책 참여, 공론장 확대

-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온라인 중심 담론 형성의 한계 극복을 위한 청년층 간 소통과 토론 지원

